

# 기업대출 한달새 5조 증가... '투자 저울질' 대기자금도 급증

5대은행, 가계대출 잔액 766조  
주담대 중심 전월대비 1364억 ↓  
요구불예금 15조 늘어난 700조  
'중등 리스크' 투자심리 위축 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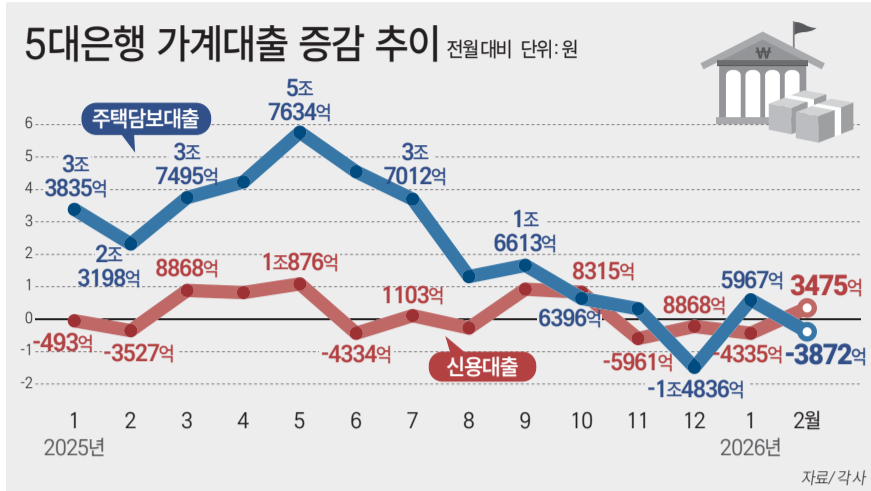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기업대출은 한 달 새 5조원 넘게 증가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5조 7290억원으로 한달 전(765조8655억원)과 비교해 1364억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 -4563억원, 1월 -1조8650, 2월 523억원으로 소폭 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다.

### ◆ 주담대 줄고 기업대출 급증

가계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3339억원으로 전월(610조7211억원) 대비 3872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주담대는 ▲1월 -1조 4836



억 ▲2월 +5967억원 ▲3월 -3872억원 등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월 -4762억 원 ▲2월 +3조 931억 원 ▲3월 1조 7992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감소세다.

마이너스 통장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6595억원으로 한달 전(104조4954억원)과 비교해 3475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빠르게 늘었다. 5대 은행의 대·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859조7737억원으로 전월(854조3288억원) 대비 5조4449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강조하며 자금을 가계에서 기업으로 유도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 증시 관망세 속 대기자금 급증

한편 시장 자금은 요구불예금으로 유입되며 대기성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달 평균 코스피 거래대금은 30조1583억원으로 전월(32조2334억원)

보다 소폭 감소했다. 중등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MMDA포함) 잔액은 699조9081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477억원 늘었다. 지난 2022년 6월(725조 6808억원) 이후 45개월 만에 최대치다. 지난 2월 33조 325억원에 이어 두 달 새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자금으로, 투자 대기자금 성격을 띤다. 최근 예·적금 만기 자금이 재예치 대신 단기 대기자금으로 묶이며 투자 시점을 저울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등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자금 집행을 미루는 분위기"라며 "요구불예금 증가는 투자 수요가 줄었다기보다 투자시점을 저울질하는 대기 자금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리카드 '한 인도네시아 큐알(QR) 결제 서비스' 관련 이미지. /우리카드

## 우리카드 인니서 QR결제 서비스 환전 없이 앱 간편결제

우리카드가 국내 카드사 최초로 '한·인도네시아 큐알(QR) 결제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금융결제원망을 활용해 구축한 국가간 QR 결제 서비스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우리카드 고객은 환전 없이, 기존 우리카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현지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 3200만개 이상의 큐리스(QRIS)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전용 상품인 '카드의정석2 ExK 체크'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카드는 인도네시아에서 QR 결제와 현금자동인출기(ATM) 서비스를 모두 지원한다.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주요 동남아 국가에서도 AT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수수료·환율 혜택을 제공한다. QR 결제 서비스 이용 시 국제브랜드 및 해외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TM 인출 서비스는 해외 인출 수수료를 건당 500원 정액제로 적용하고, 3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안재선 기자)

## KB국민은행 해외결제 서비스 국가 인도네시아 전역 확대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 국가간 QR결제서비스인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 대상 국가를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간 QR결제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국내 금융사와 해외 지급결제기관을 연결해 각국의 금융 앱을 통해 상대방 국가에서도 QR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발리,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전역의 약 3200만 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카드 복제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없이 KB스타뱅킹 앱 하나로 QR코드를 스캔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KB국민은행은 국내 최초로 금융결제원의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 국가QR결제망인 QRIS와 직접 연계해 이중 환전 없이 현지 통화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결제 편의성을 강화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10억 로또' 아크로드 서초, 청약 경쟁률 1099대 1

30가구 모집에 3만명 넘게 몰려  
서울 민간분양 중 역대 최고 기록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 서초'의 청약 경쟁률이 1099대 1로 서울 민간분양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30가구 모집에 무려 3만명 넘게 몰렸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드 서초는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30가구 모집에 총 3만2973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99대 1로 기존 서울 청약 경쟁률 역대 최고치인 '디에이치 에펠루이(평균 1025대 1)'를 웃돌았다. 특히 전용면적 59㎡A타입은 26가구 모집에 2만9535건이 접수돼 1135대 1을 기록했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초동 서초산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



아크로드 서초 투시도. /DL이앤씨

다. 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56가구에 불과하다. 타입도 전용 59㎡만 나왔다.

아크로드 서초는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26가구 모집에 총 1만9533건의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751대 1에 달했다. 특히 4가구 모

집에 7589건이 접수된 전용 59㎡A타입(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8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800만원선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가 18억6490만원이다. 인근에서 지난 2021년 입주한 '서초그랑자이'의 전용 59㎡가 올해 1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2020년 입주한 '래미안 리더스원'은 전용 59㎡가 지난달 32억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뛰어난 입지에 더해 아크로라는 브랜드의 상징성이 강남에서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며 "독보적인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정당 계약은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 KB국민카드 '주유 특화' 리터당 150원 혜택

4종 발급시 연회비 100% 캐시백  
추첨통해 K-패스 환급금 30% 추가

KB국민카드가 중등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과 고객 부담 증가에 대응해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유류비와 대중교통비 등 필수 지출 영역에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먼저 주유 특화카드 이용 시 리터당 추가 50원을 더해 최대 150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 할인 혜택이 담긴 카드 4종을 발급하는 신규 및 휴면 고객에게는 연회비 100% 캐시백을 제공한다.

내달까지 5만명을 대상으로 'KB국민 K-패스카드' 연계 교통비 추가 환급도 지원한다. 해당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패스 환급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KB국민 K-패스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지원안도 마련했다. 주유 및 대중교통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 가운데 총 2111명을 추첨해 주유지원금 ▲100만원(1명) ▲50만원(10명) ▲5만원(100명) ▲5000원(2000명)을 제공

한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의 교통·에너지 정책 방향에 부응한 고객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 KB페이(Pay) 메인 화면을 통해 정부 정책 정보를 안내하고,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요일별 운행 가능 차량번호 정보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최근 대외 환경 변화로 유류비와 교통비에 대한 고객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체감 혜택 중심으로 지원안을 마련했다"며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의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와 합



서울 광화문 KB국민카드 사옥 전경. /KB국민카드

계 소상공인에게 온기가 더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